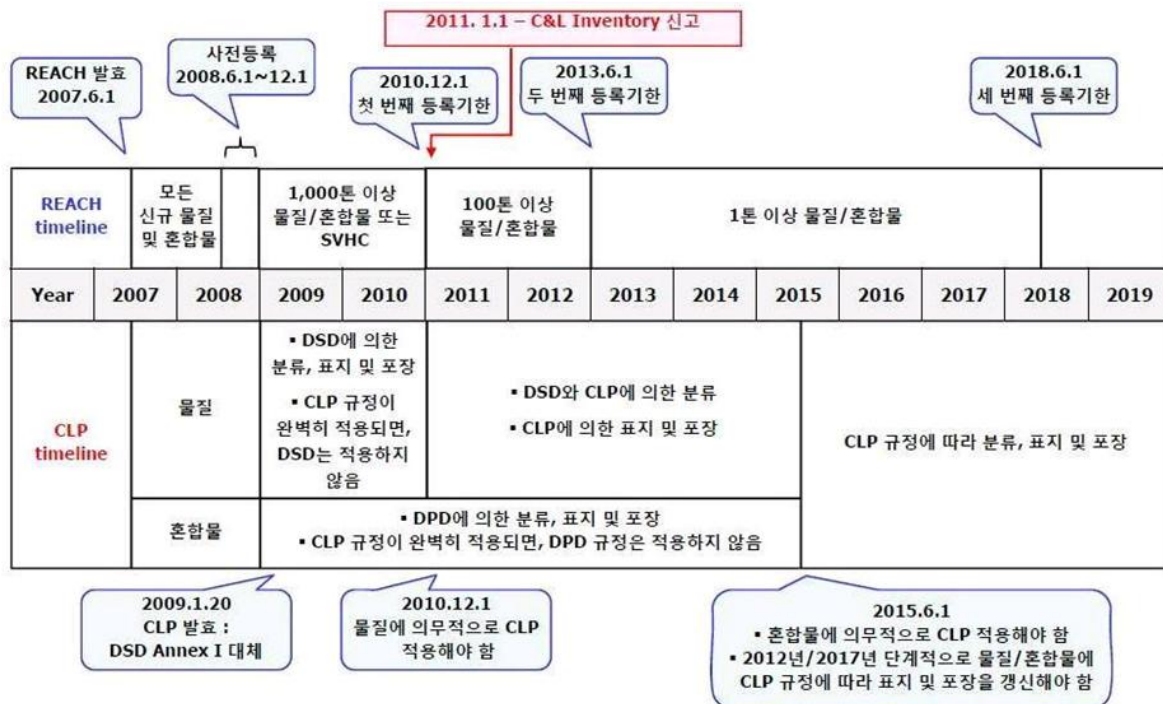


## 유럽 CLP제도와 국내기업의 영향

EU 에서는 2009 년 1 월 20 일자로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령(Regulation (EC) No 1272/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the CLP)을 시행했다. CLP 법령은 기본적으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for Classification & Labelling of Chemicals)가 목표로 하는 바를 좀 더 빠르게, 쉽게, 확실히 달성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공통 제도로서, 2009 년 말경부터 CLP 법령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유럽 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CLP 법령과 관련해서 유럽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과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CLP 및 REACH Timeline



## 2. 물질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단일물질의 경우 2010 년 12 월 1 일부터 CLP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15 년까지는 이전 법령인 Dir 67/548/EEC 법령에 따른 분류와 CLP 법령에 따른 분류가 함께 이용되어야 한다. 혼합물의 경우 2015 년 6 월 1 일까지는 이전 법령인 Dir. 1999/45/EC 법령 또는 CLP 법령에 따른 SDS 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2015 년 6 월 1 일부터는 CLP 법령에 따른 SDS 만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유럽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유럽의 수입자들과 협의하여 기한 내에 CLP 법령에 따른 SDS 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는 유럽 역내에서 제조나 수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최근 유럽기업의 경우 CLP 법령을 적용한 SDS 를 요구하고 있어서, 적절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CLP 법령에 따른 SDS 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분류 및 표지 신고(Notification to the C&L Inventory; C&L 신고)

물질들을 유럽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ECHA 의 분류 및 표지 목록에 해당 물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ECHA 에 분류 및 표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신고대상 물질, 신고내용, 신고기한 및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신고대상물질

- (a) REACH 법령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물질(1 톤 이상),
- (b) 유해한 것으로 분류된 물질(톤수 무관), 및
- (c)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어 혼합물 내에 소정 농도한계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물질(톤수 무관)

### B. 신고 내용

- (a) Regulation (EC) No 1907/2006 의 부속서 6 의 제 1 절에 기술된 것과 같은 물질(들)의 시장출시에 책임이 있는 신고자(들)의 신원;
- (b) Regulation (EC) No 1907/2006 의 부속서의 6 제 2.1 절부터 제 2.3.4 절에 기술된 것과 같은 물질(들)의 정보;
- (c) 제 13 조에 따르는 물질(들)의 분류;

(d) 물질이 모든 유해성 클래스 또는 차이에 대해서 분류되지 않은 경우, 그것이 자료의 부족 때문인지, 결정적이지 않은 자료 때문인지, 또는 분류를 위해 충분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자료 때문인지를 나타내는 표시;

(e) 적용 가능한 경우, Regulation (EC) No 1907/2006 부속서 1 의 제 1 절, 제 2 절 및 제 3 절의 관련 부분을 사용한 타당성과 함께, 본 규정의 제 10 조에 따르는 특정 농도한계 또는 M-계수;

(f) 제 25 조 제 1 항에 따라 결정된, 물질을 위한 어떠한 보충 유해성문구와 함께, 물질(들)에 대해 제 17 조 제 1 항의 제 d 호, 제 e 호 및 제 f 호에 기술된 표지 요소.

### C. 신고 기한

(a) 2010 년 12 월 1 일 이전에 시장 출시된 물질:

⇒ 2010 년 12 월 1 로부터 1 개월 이내

(b) 2010 년 12 월 1 일 이후에 시장 출시되는 물질:

⇒ 시장출시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D. 신고 제외 대상

동일 제조자 및 수입자에 의해서 REACH 법령(Regulation (EC) No 1907/2006)에 따라 등록 서류의 일부로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된 경우.

## 4. 국내기업의 대응

국내의 경우 GHS 적용이 유럽의 CLP 보다 빨리 적용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CLP 에 따른 SDS 준비는 많은 국내기업에서 인식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C&L 신고의 경우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역내의 수입자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말에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ECHA 에서는 내년 1 월 3 일까지 상당히 많은 C&L 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2 백만건 정도의 신고를 기초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C&L 신고의 경우, 물질 정보에 대한 공개가 영업기밀과 관련될 경우 수입자, 국내 수출자, 국내 수출자의 상위공급자와 업무 협조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유럽 현지에서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국내기업의 경우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LP 법령을 이해하고, 공급망에서의 물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상위공급자 및 수입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여야만 수출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